

왜 개똥철학인가?

내가 썼지만 너무 근본 없이 쓴 글이라 딱히 인정하기 어려워서 그렇다.

아마 나중에 책 좀 많이 읽고 퇴고하면 머릿속 내용 짜깁기한 무지성 글이라 생각할지 모르겠다.

어쩌다 보게 된 물리학과 김상욱 교수님 유튜브 영상([링크](#))이랑 수학 박사님 영상([링크](#)) 중간중간 끊어 보다가 문득 든 생각들 그냥 생각나는 대로 쓰면서 정리한 거다.

예전부터 지금까지 죽 죽는다는 건 무서웠다.

소멸도 무섭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우주와 영원 또한 그만큼 무서웠다.

고등학교 때 과학 수업 듣고 와서 기숙사에서 자기 전 문득 이 생각이 들었을 때 막연한 공포에 잠에 들지 못했던 기억이 난다.

이 외에도 종종 이런 생각 하다가 잠 못 이뤘는데, 결국 하루 날 잡고 진득하게 사유하다가 '이건 내가 지금 생각해서 어찌할 수 있는바가 아니니 잠이나 자자'라는 정도로 잠정 결론을 지었다.

어디선가 본 이 문구가 결론을 내리는 데 많은 도움이 되었다.

우리가 하는 걱정거리의 40%는 절대 일어나지 않을 사건들에 대한 것이고,
30%는 이미 일어난 사건들,
22%는 사소한 사건들,
4%는 우리가 바꿀 수 없는 사건들에 대한 것들이다.
나머지 4%만이 우리가 대처할 수 있는 진짜 사건이다.
즉 96%의 걱정거리가 쓸데없는 것이다.

— 어니 J. 젤린스키 '느리게 사는 즐거움' 中

죽음에 대한 걱정이 덜어지자, 그 자리에 삶에 대한 궁금증이 채워지기 시작했다.

나는 왜 살까?

가끔 농담 삼아 하는 말이기도 하지만 진짜 궁금했다.

'왜 사는가?' 에 답변을 하기란 어려웠다.

그래서 '왜 사는가?'에서 파생될 수 있는 '나는 누구인가?'라는 질문에 먼저 답변을 정리해 봤다.

내가 누구인지는 스스로 정의할 수 있다.

어떤 사람이고, 무엇을 목적으로 살아가는 지도.

다만 그게 정답이 아닐 수도 있다.

우리는 타인을 절대 온전히 이해할 수 없다.

발언의 진의와 심리, 의도를 투명하게 알 수 없다.

이것도 기술이 해결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으나... 일단 지금 생각은 그렇다.

그래서 가면을 쓰면 다른 이들에게는 내가 정의한 모습 그대로를 보일 수 있다.
본인만이 실상은 그렇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자신을 속이는 메소드 연기를 하면 더 완벽하겠다.
뭐 어떤가?

마음 가는 대로 해도, 하지 않아도 된다.
속마음과 다른 모습을 보여도 된다.
모든 건 다 내 뜻대로 할 수 있다.

마음이 바뀌면 바뀌어도 된다.
모든 걸 내 뜻대로 할 수 있다는 말에는 그것까지 포함된다.
스스로 또는 다른 이들이 납득할 만한 그럴듯한 근거를 대도, 대지 않아도 된다.
그저 하면 되고, 그로 말미암아 생기는 현상들을 즐기면 된다.

스스로에 대한 정의가 정답이길 원하면 학문을 하면 된다.
내가 어디서 기원하여 어떻게 진화하고 지금의 모습이 되었는지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학문을 하면 된다.
다만 지금의 나는 이런 것에 대해 딱히 안 궁금하고, 하고 싶지도 않다.

자신을 정의하는 것이 어렵다면, 이전에 나와 같은 상황에서 자신을 정의 내린 사람들을 찾아보면 된다.
지금 살아있는 이도 좋고, 죽었지만 기록으로 살아있는 이도 좋다.

참 재미있다.
나를 정의하는 일은 분명 마음대로 해도 좋지만, 정작 마음대로 하고자 하면 불안하다.
이 불안감이 학습된 것인지, 타고난 것인지는 모르겠다.

그래서 우리는 의지를 찾는다.
의지는 욕구들이 합쳐져 만들어진 마음가짐으로 논리적인지는 모르겠으나 설득력이 있다.
뛰고자 하는 욕구, 이기고자 하는 욕구, 인정받고 싶은 욕구 등등...
이들이 조합 결과는 직업의 형태, 삶의 태도 등의 형태로 나타난다.

예전에 원피스 'D의 의지' 이런 말 들었을 때 속된 말로 '오타쿠' 같다고 생각했다.
근데 요즘은 생각이 좀 다르다.
내가 오타쿠가 되어서 그런가?
요즘은 나는 우리의 존재 자체도 누군가의 계승된 의지라는 생각을 한다.

학문도 의지의 승계이다.
이전 연구자의 논문을 레퍼런스 삼아 연구를 심화시키고 발전시키는 건 그 사람의 의지를 이어받는다는 느낌.
선수가 신기록을 경신하기 위해 노력하고 일선에서 물러난 이후에는 후학 양성에 몸 담그는 것도, 나에게 특정한 의지가 있고 내 앞뒤로 내 의지를 이어받을 사람이 있기에 가능한 일.

그래서 뭐 어찌라는 건가?
결론이 뭐가?
나도 모른다.
처음부터 개종철학이라고 했잖아요.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답은 '의지를 전수받고 계승하며, 생각하는 방향에 따라 스스로를 가변적으로 정의내릴 수 있는 존재' 정도로 내볼란다.

의지라는 개념으로 설명한 삶이 스스로는 어느 정도 납득이 됐는데, 그다음은 모르겠다.
너무 가면에 집착하지 말고 그냥 꿈꾸고 바라는 모습 그대로 살아가자~
삶은 유한하지만 의지는 무한히 이어질 수 있는 것이니 영원히 살 것처럼 배우고 내일 죽을 것처럼 살자~
뭐 이런 말을 나는 글을 쓰며 스스로에게 하고 싶었던 것이 아닐까?

